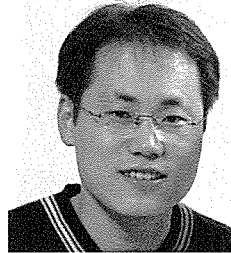


그렇다면 사회복지기관 지원 사업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사회복지 현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이를 위해 아산복지재단 담당자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 글 / 김현철 (아산복지재단)

1. 귀 기관에서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회복지 지원사업분야와 사회복지 기관 지원사업을 통한 효과성에 대해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아산 재단은 1977년 설립부터 현재까지 사회복지 생활시설 장비지원 사업을, 특히 장애인·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의료재활 장비 지원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1990년대부터는 복지관 등의 이용시설에 프로그램 지원을 병행하고 있는데, 매년 3월 중순경에 지원신청 접수를 받아 6월경에 지원 단체를 최종 선정, 7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간접시설을 먼저 갖추고 그 바탕에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야 하듯이 사회복지시설의 발전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물론 사회복지시설의 기반조성은 국가가 1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국가의 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것이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현주소이고, 특히 정부의 지원이 전혀 없는 미신고시설의 생활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태에 놓여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산재단의 사회복지 생활시설 장비지원은 사회복지 대상자의 보호와 교육재활 서비스가 원활

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일조하였다고 생각한다.

2. 지원사업 공모 시 많은 사회복지 기관에서 프로포절을 받으실 텐데요, 심사 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은?

재단의 지원의도를 잘 이해하고 이에 따라 프로포절을 작성한 단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재단의 지원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단에서 제시한 지원요강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재단의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또한 신청단체에서 신청사업을 수행해야 할 이유가 타당한가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이를 떼면 외국인노동자에 관한 사업을 신청한다고 가정했을 때 외국인 노동자의 보편적인 문제와 욕구를 나열하기 보다는 신청단체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구체적이고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하지만 서류심사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아산재단에서는 현장방문을 통한 실태조사를 통해 보다 면밀하게 심사를 하고 있다.

3. 현 사회복지 기관들이 제출하는 프로포절을 간단하게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프로포절 작성법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많이 실시되고 있고, 사회복지사들의 역량도 상당히 향상되어 프로포절만을 가지고 우열을 정하는 것이 점점 어렵게 되었다. 신청서류를 검토하다보면 몇 일 밤을 새워가며 노력한 사회복지사들의 땀과 정성이 느껴지는데, 그러한 땀과 정성에 비해 다소 아쉬운 점도 몇 가지 눈에 띈다. 내용면에서는 진실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점인데, 지원받고자 하는 의욕이 너무 앞서 다소 과장되기도 하고, 때로는 밝히기 곤란한 내용은 감추고자 하는 면이 엿보이며, 형식면에서는 너무 많은 정보를 담아서 오히려 핵심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신청내용을 압축하는 기술이 다소 부족한 감이 있다.

4. 앞으로 귀 기관에 프로포절 제출 시 어떤 방향으로 작성하면 좋은지 간단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가장 좋은 프로포절은 상대방을 배려한 프로포절이라고 생각한다. 프로포절은 나와 내가 속한 단체의 직원이 보는 것이 아니라 제 3자, 즉 신청단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읽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어떻게 상대방을 감동(?)시킬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프로포절을 작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오늘도 여러 공모사업에 제출할 프로포절을 작성하는 모든 사회복지사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을 기원한다.